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당신의 꿈을 펼쳐라

인 · 사 · 말



당신의 꿈을 펼쳐라

우리 대학은 ‘취·창업에 강한 자립하는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진로 및 취업,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 1학년(도전학기), 2학년 및 3학년(성장학기), 4학년(자립학기)의 학년별 CHARM 경험교육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제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계 및 하계 방학, 학기 중 등 연중으로 학생들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참여 학생이 78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제천지역을 포함 해 전국 143개의 기업과 관공서에서 459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수 있는 세명대학교 대표 경험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습니다.

현장실습은 학점 취득과 장학금을 받으며 학부(과)에서 쌓았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실무자 멘토와 함께 일하면서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고 기업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습 기업관리 TF를 운영하는 등 참여 기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발대식과 성과보고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현장실습의 좋은 경험들을 여러 학생들이 공유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수기집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발간되는 현장실습 수기집에는 17명의 학생들의 솔직한 체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미있고 생생한 현장실습의 다양한 경험들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소중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게 책자로 발간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현장실습지원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취·창업지원처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 책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세명대학교 취·창업지원처장 이완건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SMU 취·창업지원처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학생들의 취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학 또는 학기 중 국내·외 기업체 또는 산업기관 등의 현장에서 실습업무에 참여하여 실무를 체험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임

1. 참가자격

- 가. 본교 4학기 이상 이수한자(편입생은 2학기 이상 등록)중 재학생
- 나. 참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
- 다. 현장실습 학점취득을 합산하여 졸업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학생
- 라. 그 외 본교 현장실습규정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 마지막학기의 동계방학은 졸업학점 충족 및 졸업결격 사유가 없는자는 가능
 - * 그 외 제외대상은 국내·외 현장실습 운영규정에서 확인가능

2. 현장실습 학점인정

- 가. 수강과목
 - 1) 4주 이상 : 국내·외 현장실습 I (3학점)
[2회차 계절제 수강자는: 국내·외현장실습심화 I]
 - 2) 6주 이상 : 국내·외 현장실습 II (6학점)
[2회차 계절제 수강자는: 국내·외현장실습심화 II]
- 나. 현장실습은 계절제 2회, 학기제 1회 신청 가능(기존 인턴십으로 이수한 경우 포함)
 - * 계절제+학기제 이수학점이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 확인
- 다. 수강관련 유의사항
 - 1) 학점인정
평가결과 60점 이상이면 학점을 인정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2) 이수구분
현장실습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며, 교양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3) 온라인강좌 수강 [학기제 프로그램 참가자]
현장실습 수강시 오프라인 강의는 신청할 수 없으나, 현장실습을 제외한 잔여 이수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 온라인 강의는 신청 할 수 있음

4) 실습시간 및 기간의 인정

교과목에 따른 실습기간 및 시간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하며, 결과 제출시 근무기간 및 시간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Non-pass 처리함
※ 최종 기업과 매칭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습이 취소됨

5) 선정기준

현장실습 참가자 및 실습기관의 선정은 본교 현장실습운영규정에서 제시한 적격 여부를 충족한 경우 당연 선정된 것으로 하며, 참여기관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승인함

3. 현장실습 지원금 수혜

- 가. 현장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본교생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장학금 지원
- 나. 지급액: 현장실습장학금 - 40만원~160만원까지 지급
- 다. 제천시 지역 현장실습시: 현장실습장학금 + 제천시지원금 (2020학년도 하계 60만원)
- 라. 기타: 장학금 및 제천시 지원금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관련 필수확인!!!

현장실습장학금은 종료 후 출석미달 및 성적평가 결과 NON-PASS시 미지급처리 되므로 참여 학생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현장실습 참여 기업 혜택

- ✓ 기업지도위원 튜터비(대학혁신지원사업)
- ✓ 정부의 산학협력 마일리지 부여를 통한 정부 R&D 사업 참여시 가점
- ✓ 대학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 현장실습으로 검증된 인재 채용을 통한 실무교육비용 절감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계절제

- 4주 프로그램 : 국내외 현장실습 I [국내·외 현장실습심화 I]
- 전공 3학점, 장학금 40만원
- 6주 프로그램 : 국내외 현장실습 II [국내·외 현장실습심화 II]
- 전공 6학점, 장학금 40만원

학기제

- 12주 프로그램 : 국내외 현장실습 III - 전공 12학점, 장학금 120만원
- 15주 프로그램 : 국내외 현장실습 IV - 전공 15학점, 장학금 160만원



기업 참여 신청 방법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현장실습지원센터 안내)

http://intradev.semyung.ac.kr/smuwork_index.jsp



※ 문의처 : 043)649-1675~7

참여가능기업(기관)

- ✓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인 경우 참여 가능)
- ✓ 공공기관 및 대기업, 교육기관



현장실습 운영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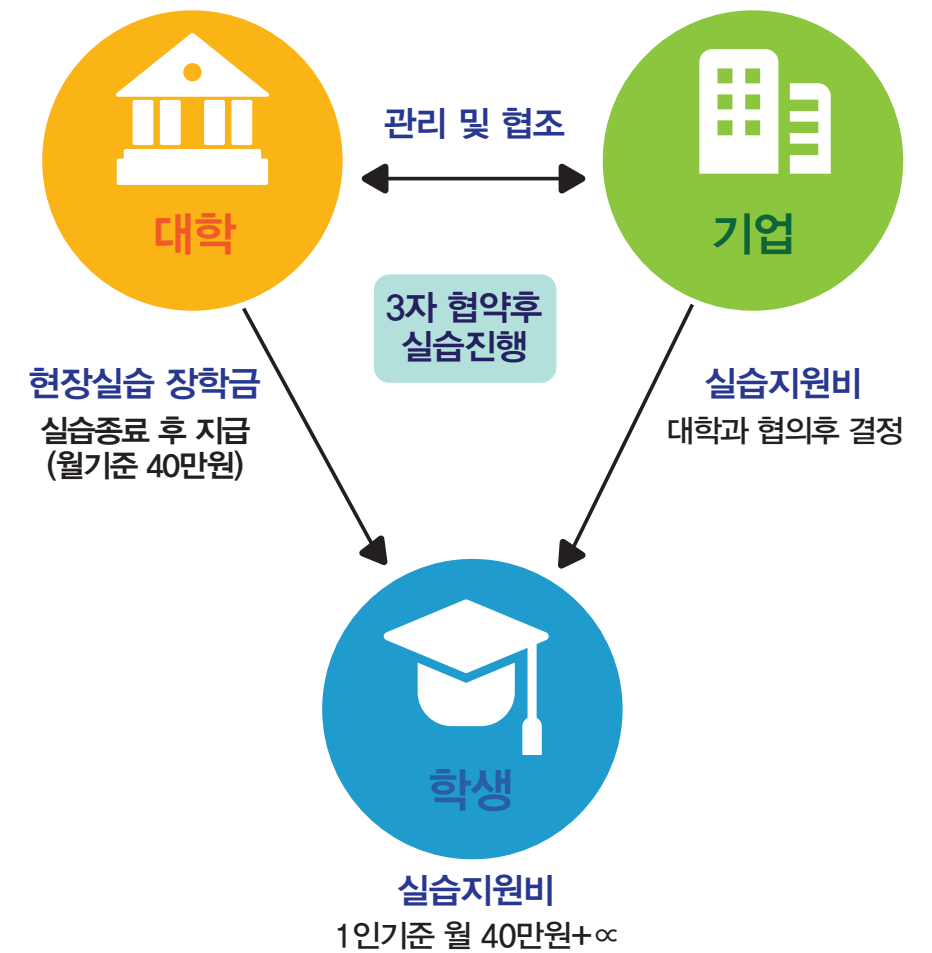
- ✓ 실습인원은 고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선발 권장
-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야간 운영 불가
(단, 기업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조정 가능)
- ✓ 현장교육전담자를 실습지도위원으로 지정
- ✓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단,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
- ✓ 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

2019년 하계부터 모든 처리는 온라인시스템에서 처리되며, 기업신청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예정입니다.

현장실습 운영 절차



현장실습 운영 체계도



우리 대학 전공 분야



구분	학부(과)	전공
인문예술 대학	미디어문화학부	미디어한국어문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국제언어 문화학부	영어학
		중국어학
		일본어학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
		실내디자인학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패션디자인학
사회과학 대학	공연영상학과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부동산학과	
	소방방재학과	
	기업경영학과	
	글로벌 경영학부	경영회계학
		무역경영학
	호텔관광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구분	학부(과)	전공
IT 엔지니어링 대학	컴퓨터학부	컴퓨터시스템학
		소프트웨어학
	정보통신학부	네트워크 · 보안학
		임베디드시스템학
	전자상거래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보건안전공학과	
	바이오환경공학과	
보건바이오 대학	바이오제약 산업학부	천연물약학
		제약산업학
	화장품 · 뷰티생명 공학부	화장품과학
		뷰티생명공학
	바이오식품 산업학부	식품영양학
		건강기능식품학
	생활체육학과	
총 29개 학부(과) 참여		

Contents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당신의 꿈을 펼쳐라



나의 꿈에 첫 발을 내딛다.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하지원 <대상>	13	전공역량강화 현장실습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장나영 <입선>	65
값진 경험이었던 현장실습을 마치며 글로벌경영학부 김민성 <최우수상>	19	처음으로 워커홀릭을 경험하다. 경찰행정학과 윤희 <입선>	71
15주, 변화하기에 충분하고 가치 있는 시간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이다연 <우수상>	25	산삼배양근 조직배양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도효은 <입선>	77
뿌듯함으로 가득했던 현장실습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임유진 <우수상>	31	6주간의 성장 통 광고홍보학과 김민선 <입선>	83
나의 '사회복지사' 라는 꿈에 날개가 달린 시간 사회복지학과 강하연 <장려상>	37	현장실습, 더 높이 날기 위한 도약의 발판. 경찰공공행정학부 온명진 <입선>	89
내 인생의 기회는 내가 잡는 것이다.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조수연 <장려상>	43	장마 속에서 4주간 행복하게 살아남기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김민송 <입선>	95
Turning Point 건축공학과 문득기 <장려상>	49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연습 < 경험에서 얻는 정보!> 전기공학과 노주명 <입선>	101
무릉도원[武陵桃源] 융합디자인학부 문채영 <입선>	55	메가코스와 J&J, 중소기업과 소기업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이예지 <입선>	107
사회복지사로서의 한걸음 더 사회복지학과 김형근 <입선>	61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나의 꿈에 첫 발을 내딛다.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하 지원



나의 꿈에 첫 발을 내딛다.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하 지 원

저는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참 행복합니다. 23살 된 제 인생을 만약 인생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아마 가장 높은 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실습'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8시간이라는 현장실습 시간은 언제나 저에게 경험과 배움, 성장이라는 복합체를 매일 선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현장실습에 대한 모든 것들을 '4C'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1. C (Challenge : 도전)

저의 꿈은 맞춤형 기초화장품을 제조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 그들의 피부 고민거리를 치유,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인 화장품 회사의 R&D 부서는 늘 일상 속에서 저의 첫 번째 관심사로 자리를 잡았고, 다양한 정보를 찾던 중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처럼 학과장님 추천으로 '심비오즈코스메틱스' 회사의 R&D 부서에서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손은 늘 갈증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진실. 5학기 동안 높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제형을 만드는 동아리에서 기초를 다지는 등 여러 가지 도전을 했기에 기회가 저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2. C (Can : 할 수 있다)

제가 실습을 한 심비오즈코스메틱스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록시땅 그룹의 '에르보리앙 (Erborian)'이라는 회사입니다. 에르보리앙은 '아시아의 허브'를 뜻하며 한국의 허브 성분과 프랑스의 노하우와 감각이 더해져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 선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을 했던 R&D 부서는 이름에 걸맞게 제품 개발과 연구, 화장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만들어진 제품의 임상 테스트를 위해 태국의 임상 시험 회사에 보낼 샘플 준비, 원료 개발 및 연구 등 정말 다양한 업무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저는 실습생으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연구원님들의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하지만 학부생으로서 아는 지식은 늘 빙산의 일각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이런 것 학교에서 안 배웠니? 지원 씨. 이것 빨리 숙지해야 해" 현장실습 2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질책하는 의미보다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는 잠꼬대로 "네,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 영어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 사장님께서 일찍 출근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일찍 출근했다가 일대일로 영어로 질문하셔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을 슬슬 피했지만 이러면 더 이상 저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장님을 피하지 않고 먼저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실습

을 통해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업무와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저의 마음속 다짐과 노력은 메모의 습관과 매일 영어 공부하는 습관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3. C (Connection & Choice : 연결과 선택)

제가 현장실습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연결의 확장성과 선택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연결의 확장성은 관계의 연결, 가치와 사람 간의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좋은 관계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R&D 부서는 시너지의 연결이 참 잘 되는 부서였습니다. R&D 직원들께 고마운 것은 늘 시너지의 합에 저를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인턴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도 늘 물어보고, 자신들의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면서 제가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기초화장품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알고 계셔서 여러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형을 만들고 실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원료와 제형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알려주면서 좋은 자료와 논문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많은 배려는 저의 실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는 협업을 많이 하는 회사 입장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관계의 연결은 상사나 부하직원 구분 없이 같은 통로로 이어질 때 시너지의 더 큰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업의 생존 부등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 원가보다 판매하는 매출가가 높아야 이익이 발생하지만, 고객은 매출가보다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가치가 더 클 때 제품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해답들을 현장실습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화장품을 단지 생활용품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바라보며 연구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관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생각과 마음까지 읽어주는 제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만든다는 업의 의미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는 인문학적 연결까지 업의 의미가 확장될 때 더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택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일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없지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는 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저의 존재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6주 현장실습생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는 것과 나는 6주 동안 에르보리앙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출근할 때 태도가 달라졌고, 일을 대하는 자세가 확연히 달라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현장실습을 되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현장실습 전과 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4. C (Confidence : 자신감)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가할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걱정할 시간에 큰 자신감을 갖고 더 많은 도전과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지방대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관심의 원'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의 원'입니다. '관심의 원'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환경 탓을 하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향력의 원'은 성장과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화장품이 좋아 문과에서 이과인 화장품학과에 전과했습니다. 좋아하는 화장품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기초화장품 연구원과 더불어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연구원이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제 자신을 늘 '영향력의 원'에 두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영향력의 원'을 키우는 좋은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들을 심는 시간에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현장실습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신 교수님과 학교,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꾸어 준 에르보리앙 회사에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값진 경험이었던
현장실습을 마치며

글로벌경영학부 김민성



값진 경험이었던 현장실습을 마치며

글로벌경영학부 김 민 성

대학교 4학년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3학년 때까지도 제 자신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대학생살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기들이 하나 둘 자격증,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자소서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를 생각하니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였고 그러던 중 저는 가족들 중 누나의 조언으로 3학년이 시작되던 해 기존에 공부하던 상경계열과는 전혀 다른 이공계열인 바이오제약산업학부에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려움과는 달리 수업을 듣다 보니 기존에 들었던 상경계열의 과목보다 어느 순간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이를 더 알고자 3학년 겨울방학 때 동기들이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것을 보고 저 역시 이를 신청하였지만 3차 추가 신청이었기에 제가 원하는 계열의 기업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때 주전공으로 신청한 현장실습을 통해 직장인들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실무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으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절(인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4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흥미를 느끼고 있던 바이오 계열의 회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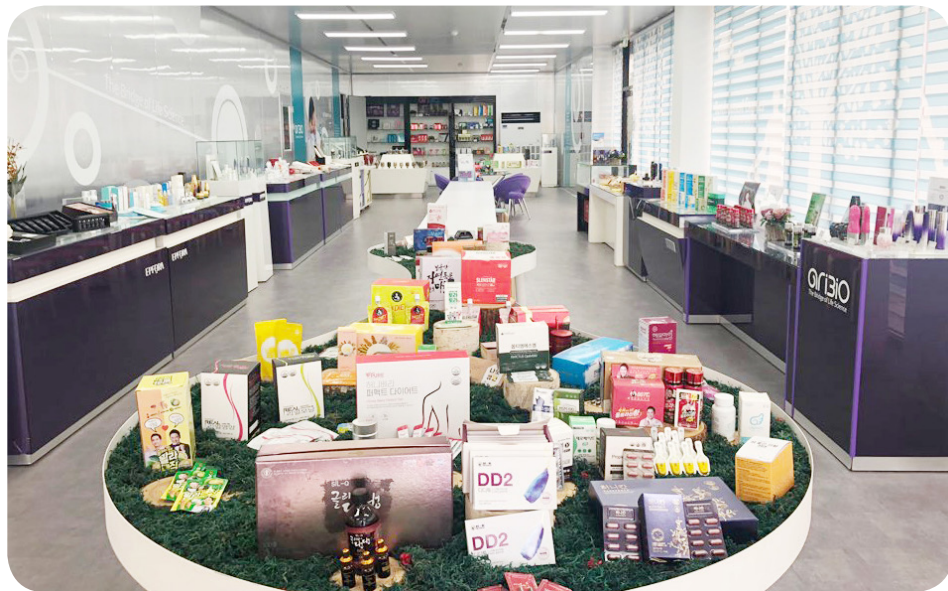
〈마지막 퇴근하면서 찍은 (주)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또 한번 현장실습을 지원하였고 여러 기업들 중에서 제천 제2바이오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라는 기업과 매칭이 되어 드디어 복수 전공계열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하기 하루 전 날 세명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하여 출퇴근 대중교통편을 알아보던 중 이동편이 마땅치 않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 지도를 통해 대학교에서 회사까지 가는 대중교통을 검색해 보고 찾아보았지만 버스는 하루에 한 대만 다니며 그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더운 여름날 버스 도착 예정 기기도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것만을 기다리다가 첫날부터 지각을 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 택시를 타고나서야 다행히 제시간에 회사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와서 그런지 첫 출근의 긴장감과 부담은 사라지고 회사를 보자마자 되게 반가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후 회사 대표님을 만나고 대표님과 여러 직원분들께서는 실습생인 저를 친절하게 반겨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야기 중 출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고 아침의 일을 말씀드리자 그 뒤로는 학교 근처에 사시는 대리님께 부탁하여 제 출퇴근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대리님 또한 직접 오셔서 부

담 갖지 말고 항상 같이 출퇴근을 하자고 말해 주시며 마지막 날까지 저의 출퇴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품질관리(Q.C) 부서였고 첫날은 회사 내 연구실 시설과 생산공장 등을 견학하고 현장실습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주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으로 듣고 있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직원분들은 이 부분들 역시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아리바이오에이치앤비 제품 전시실》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일 생각나는 일은 미생물 시험을 하기 위하여 배지를 제조하고 멸균을 하기 위해서 고압 멸균기인 오토클레이브를 작동하고 난 뒤 멸균이 된 배지를 꺼내기 위해서 뚜껑을 돌리려고 하는데 아직 고압 멸균기의 내부 온도가 조금 높아서 그러한 건지 안에 내용물을 많이 넣어서 그러한 건지 뚜껑은 열리지 않았고 저는 압력과 온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서 주임님과 같이 이를 꺼내기 위해 힘으로 이것을 돌리던 중 갑자기 고온의 증기가 빠져나왔고 하마터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빨리 저와 주임님은 오토클레이브에서 멀리 떨어져서 지켜본 후 고온의 증기가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 뚜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건 사고는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이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고압 멸균기를 작동하고 나서 압력과 함께 온도도 같이 확인하고 내용물도 조금씩 담게 되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 조심해서 꺼내게 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조심 또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실험했던 실험실 내부》

그다음으로는 방폭 캐비닛의 정리 정돈을 보조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실험복과 장갑, 마스크와 보안경까지 착용한 후 방폭 캐비닛에 들어있는 용액을 산이 들어있는 것과 산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빈 통에 폐기하는 과정을 하던 도중 빈 통에 용액을 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엄

청난 악취가 연구실과 사무실까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과 저는 악취를 인지하고 방폭 캐비닛의 정리 정돈을 포기하고 빈 통을 밀봉하고 냄새가 빠질 때까지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악취 때문에 냄새가 빠지기 전까지 마스크를 쓰고 근무해야 했었고 저는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직원분들은 놀란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장실습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는 실습이었습니다. 또한 덕분에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전에는 그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원하게 되었으나 내 인생에 있어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 회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던 마음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를 잘하는 것보다는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고 다른 직원분이 힘든 일이 있어 보일 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도와드리고 내가 몰랐던 이론들과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이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경험해봐야 나오는 노하우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의미 없는 방학을 보내는 것이 걱정인 후배님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 방학은 2달입니다. 2달이라는 시간을 여태껏 의미 없이 보냈다면 이번 방학 때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2달 중 4주 또는 6주 동안이라도 직접 실무 경험을 몸으로 느끼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실습을 마냥 아침마다 귀찮게 일찍 일어나야 하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 3주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의미 없을 것 같던 일들을 막상 경험해 보니 또 다른 나의 길이 될 수도 있으며 돈 주고는 못하는 실무 경험을 하면서 회사 내 조직의 환경을 알 수 있고 자신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실험했던 실험실 내부〉

15주, 변화하기에
충분하고 가치 있는 시간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이 다 연

15주, 변화하기에 충분하고 가치 있는 시간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이 다 연



〈제주도에서 함께 찍은 단체사진〉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뷰티 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인 3학년 이다연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15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에 누군가에게는 너무 긴 시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실습 15주라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 제가 겪었던 15주라는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학점 관리, 토익 공부, 대외활동 등 스펙을 쌓기 위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스펙을 쌓기 위한 대학생활을 위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으로는 실제 기업에서 직무에 적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주로 마케팅 분야의 실무를 쌓을 수 있었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화장품 제형 연구 분야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지도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기업에서 화장품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장품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하는지 직접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실습을 나간 기업은(주)제이앤제이인터네셔널입니다. 주로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등에 들어가는 파우더 원료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관심이 있는 화장품 제형 연구 쪽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 지도 교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기대와 불안감을 가지고 첫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롭고 낯선 환경이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회사 직원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사무실과 연구실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제조실도 구경시켜주시는 등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이루어지는 회의에 참여하여 실제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하고, 현재 화장품 업계의 동향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보조의 역할로 실험을 함께 진행하면서 제형 실험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직접 실험품의 SPF도 측정해보고 파우더 샘플을 직접 제조해보는 등 학교에서 해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파우더를 제조하여 품질관리도 진행해서 저는 연구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분야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평소에 화

장품 제형 연구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현장실습이 아니었다면 품질관리 분야까지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현장실습은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5주간 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제가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속된 말로 ‘가족 같은 회사는 피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가족 같은 기업이었기에 행복한 15주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낮가림이 많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 중에 제주도로 워크숍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족처럼 챙겨주셨고, 회식을 할 때에도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런 기업에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멘토의 만남’입니다. 회사 연구원 중 지도 교수님의 제자이자 같은 학과 1기 졸업생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선배님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저도 연구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매일 붙어 다니면서 함께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붙어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진로 고민이 많았기에 실습을 하면서 선배님에게 제 고민을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 졸업생으로서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도전해봐.”라고 이야기해 주신 게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선배님의 이야기로 그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방향성을 찾아서 나아가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는 옆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조언을 해주시는 등 실습 기간 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저는 현장실습을 통해서 좋은 멘토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현장실습을 참가하고자 하시나요? 현장실습을 참가하



〈품질관리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



〈화장품 제형 실험 후 실험 결과를 정리하는 모습〉

는 목적은 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전공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을 참가하거나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현장실습은 학교가 아닌 사회라는 낯선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닌 실무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업에서 어떠한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닌 배우는 입장으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냄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고 찾다가 기업의 전문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도전하자.’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안고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도 일단 부딪히고 도전해보면 결국 자신이 얻어 갈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현장실습

15주라는 기간 동안 저는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기업문화, 실무 경험, 다양한 인간관계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진로 방향성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단순히 전공학점을 채우고,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만 참여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여러분도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뿌듯함으로 가득했던 현장실습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임 유 진

뿌듯함으로 가득했던 현장실습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임 유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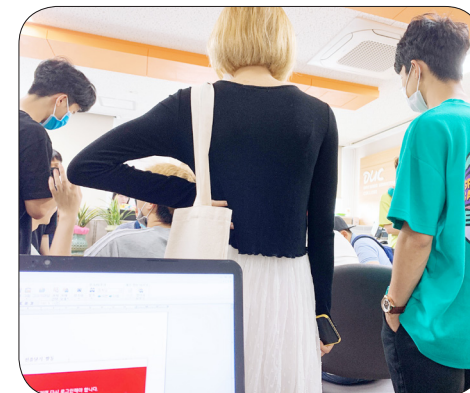
누군가 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준비’라고 답할 것이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설정한 후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준비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꽤 대단한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여행을 가거나 물건을 사기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공부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런 준비과정은 내게 꽤 큰 기대감을 불어넣어 준다. 요즘은 대학 입학 앞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했듯, 졸업을 앞두고 직무와 직장 생활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여러 인생 선배들을 통해 직장 생활에 관해 배우고 있지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직장생활을 겪어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장생활을 체험하고 배워보고 싶었다.

전형적인 직장 생활을 배우기엔 대학이라는 직장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했다. 많은 직원과 부서 수, 여러 행정 업무 등 ‘직장 생활 체험’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또, 학생의 신분으로서가 아닌 직원의 입장에서 대학을 경험에 보고 싶었다. 그 결과 나는 대원대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고 자기소개서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 ‘사람들과 잘 동화됨’을 적은 덕분에 국제 교류팀의 업무

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교류팀은 대원대학교에서 한국어학연수 중인 외국 학생들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첫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리에 앉아 내가 만나게 될 학생들에 대해 상상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발자국 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의 주인이 바로 내가 국제 교류팀에서 처음으로 만난 학생이다. 사실 외국인 학생보다는 아기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게 처음으로 주어진 업무 또한 아기 돌보기였다. 아기 엄마가 수업을 들으러 오는 바람에 이 베트남 아기도 매일 엄마를 따라 등교했기 때문이다. 아기와 나는 꽤 금방 친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한지 딱 한 시간이 지나면 복도 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에 맞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장난감을 흔들었다.

외국인 학생들과도 생각보다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베트남과 몽골에서 온 학생들이었는데, 사무실에서 간단한 인사만 나누다가 어느 날 학생들의 한국어 시험을 내가 감독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십 분에 한 번씩 손을 번쩍 들었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영어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덕에 영어로, 또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며 금방 가까워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며 같이 간식을 나눠먹는 사이로 발전했다.



〈본과로 진학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



〈제천 진로 체험 센터에서 진행한 진로체험〉

오전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시간의 나의 역할은 학생들의 일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교하면 나는 국제 교류팀의 자잘한 행정업무를 맡는 막내가 되었다. 처음엔 복사기를 사용하는 법부터 배웠다. 이틀이 지나자 복사를 하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 나는 팩스와 복사의 달인이 되었다. 복사기를 금방 마스터하자 팀장님은 내게 파일 철 표지와 옆면 등에 붙일 제목을 만들라 하셨고, 나는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쉬워 보였던 일이 하다 보니 여러 번 프린트해서 파일 철에 견주어 본 후에야 완성이 되었다. 이 일도 이틀이 지나니 요령이 생겨, 미리 자로 파일 철의 길이를 잰 후 한 번에 만들어냈다. 이제 쉬운 일은 다 배웠다. 여기에 시간마다 물과 얼음 채워놓기, 사무실 곳곳에 퍼져있는 쓰레기통 비우기, 오래된 문서 파쇄하기, 강의실과 사무실 청소하기 등을 보태 일주일 동안 반복했다.

팀장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시곤 다음 업무를 가르쳐 주셨다. 파일철의 겹을 만드는 법은 다 익혔으니 이제 속을 만들 차례였다. 학생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엑셀을 활용해 차트로 만들기도 하고, 한글을 활용해 표로 만들기도 했다. 이 과정을 배우는 데에는 2주가 걸렸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파일에 구멍을 뚫어 파일 철에 끼워 넣었다. 내가 처음으로 만든 문서를 보자 너무 뿌듯했다.

내가 이제 파일도 곧잘 만들게 되고, 다른 자잘한 행정 업무도 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나에게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 한 사무실에 있는 ‘제천 진로 체험 지원 센터’의 선생님과 나의 전공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영상 촬영과 편집을 잘한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나에게 진로체험 zoom영상 촬영과 편집에 대해 도움을 청했고, 나는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네! 제가 할게요!”라고 답했다. 그 후로 새로 꾸며진 대원대학교 방송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제천의 공방에서 섭외한 선생님의 강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중학교 선생님께 보내주기도 하고, zoom 수업으로 중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지난 학기에는 교수님의 zoom 수업의 참여자로 자리했는데, 내가 호스트, 담당자가 되니 너무 신기하고 벅찼다. 몇 번 온라인 수업을 이끌어나가며 사무실의 행정 업무와는 다른 많을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이제 현장실습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가 전공 관련 업무를 즐겁게 실습하는 것을 본 팀장님은 마지막으로 내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나 더 주셨다. 국제 교류팀의 홍보 리플렛을 디자인 해달라는 것이었다. 현장실습 시간이 부족해 리플렛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시안 두 페이지 정도만 만들어 드리고 나는 국제 교류팀에서의 생활을 정리했다.

나는 한 사무실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아기와 소통하는 법, 상사 및 동료와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잘한 사무실 막내 노릇, 행정 업무, 영상 촬영 및 편집, 리플렛 만들기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배웠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으로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 주된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가 만든 대원대학원 국제 교류팀 홍보 리플렛 표지〉



〈외국인 학생의 아기, 끼엣〉

에 전신 거울에서 나의 '출근복'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일을 배우고, 또 해내는 내가 참 기특했다. 졸업과 취업을 하기 전 의미 있는 공부, 즉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후배들이 졸업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처음으로 만든 파일 철〉



〈현장실습을 마무리하며 준비한 편지와 간식〉

나의 '사회복지사'라는 꿈에 날개가 달린 시간

사회복지학과 강 하 연

나의 ‘사회복지사’라는 꿈에 날개가 달린 시간

사회복지학과 강 하 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관심 있는 사람 중 나랑 같이 현장실습할 사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학기 수업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을 때, 학과 단체톡방에 과대 선배가 이런 글을 올렸다. 나는 바로 과대 선배에게 이미 지원한 사람이 있나 물었고, 없다는 말에 내가 하겠다며 나섰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봉사활동이 취소되고, 학교는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컴퓨터만 보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들이 정말 아깝고 지겨웠을 때였다. 그래서 과대선배의 그 톱이 정말 반가웠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있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직무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에 설레기도 하였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해 학과 내 실습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적은 있다. 내가 처음 이 직업에 관심이 생긴 것은 학과 교수님들 중 한 분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이며 학과 전공과목인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을 수강하면서였다. 사람의 정서를 전문가로서 분석을 하여 그 불안정한 정신질환의 원인을 상담을 통해 알아내고, 치료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한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직업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 직업에 대한 나의 열정을 품고 진로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과대 선배

의 지원 요청으로 이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이 분야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으며 4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온전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내게 된다면 나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배워보겠다 다짐도 했다.

이곳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로 대상자(클라이언트)의 가정에 방문하고, 사례관리를 하였다. 방문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상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증상관리에 대해 사회복지사로서 조언과 관리를 해주며, 그들이 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 30분 이상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예비 사회복지사이다 보니 대상자를 만나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대상자들의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묻는 것이 효율적인지,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등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미흡했고,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4주간 선생님들을 따라 다니며 대상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생겼고, 두렵지 않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생님의 소통 방식이 떠오른다. 환청과 환각 증상이 있는 ‘조현병’질환을 앓고 있던 대상자 사례관리를 나간 날이었다. 대상자는 “선생님, 오늘 밤에도 어떤 사람이 제 집 창문 앞에서 저를 계속 쳐다보다 갔어요. 근데 이걸 저에게만 보이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보이는 걸 이웃들이 알게 된다면 저를 미친년 취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았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현장실습생인 나는 속으로 ‘왜 그런 생각이 드셨지? 이건 환각 증상이 악화된 것일까?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을 권장 드려야 하나?’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으나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이거는 (대상자)님이 이상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가 (대상자)님 집 앞에서 쳐다보다가 간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 날일이예요. 범죄잖아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게 (대상자)님의 증상으로 보이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집 앞에서 쳐다보는 게 아니니

까요.”라며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이것이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음을 알렸다. 그리고 계속 그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쳐다보는 것 일 수 있으니 경비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에게 요청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차 후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다. 실제로 대상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안심이 된다며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 상황을 지켜본 예비 사회복지사인 난 ‘상담이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꼈으며 수많은 경험에서 나온 이 상담기술과 대상자 소통 방법을 직접 경험하는 이 시간들에 감사함도 느꼈다.

나는 4주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약 20여 명의 대상자들을 만났다. 대상자들의 정신질환 병명은 모두 달랐으며 질환 발견 시기, 질환의 증상 강도, 대상자의 현재 상황 또한 다 다르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는 기회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우울증으로 인해 집안에만 있어 벌레가 기어 다니고 파리가 날아다녀도 잡을 힘조차 없이 열악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대상자,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 정신질환과 신체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계속 넘어져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대상자 등 기억에 남는 대상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경험으로 그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들의 욕구를 알게 되었다. 내가 1년 차 새내기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 처음 방문했다면 당황하고 때론 무서워서 전문가, 지지자, 교육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사회복지사일 때 다양한 대상자들을 각각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욕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곁에 있으며 충분히 배워나갈 수 있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 한 달(4주)은 나의 꿈에 날개가 달리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 대학생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며 무조건 이득이구나 생각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4학년 막 학기를 앞두고 이런 기회를 접했다는 것이 아쉽고 후회가 남는다. 이에 학과 후배들에게 무조건 현장실습 프로그램

에 참가해보라 추천하려 한다. 나처럼 본인의 정확한 진로를 정한 상황이라면 더 많은 경험을 쌓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많은 경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해 구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후배들뿐 아니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는 기회는 대학생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 말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본인을 더 이상 학생이니 봐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생 때 누가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것 같다. 이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면접을 볼 때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이다. 본인의 진로에 대한 경험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만난 인연들과 경험들이 본인도 모르게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라 자랑스럽다. 이번 현장실습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글을 마치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한다.

제천시 한수면에서 ‘대상자 우울 및 자살 척도 검사’ 진행하는 모습

위 사진은 현장실습 중, 사례 발굴을 하는 모습이다. 제천시 한수면에 방문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 및 자살 척도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에 속한 대상자들을 상담 및 치료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조사에 흔쾌히 응해주셨다. 특히 기억에 남은 한수면 덕곡리 지역주민들은 총 10명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1명 이외에 모두가 정신건강 정상 범위에 있었다.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지역주민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였으며, 나누어 먹는 것을 좋아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을 갔던 날은 나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난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내 인생의 기회는 내가 잡는 것이다.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조 수 연

내 인생의 기회는 내가 잡는 것이다.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조 수 연

저는 솔직하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전에는 현장실습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심비오즈코스메틱스’라는 기업에 현장실습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뭐든 직접 체험해보자는 작은 포부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심비오즈 화장품 기업의 자체브랜드 에르보리앙(erborian)은 록시땅 그룹의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사장님께서 프랑스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영어인데 첫날부터 자기소개를 영어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습 전날부터 잠을 설치며 긴장 넘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문을 여는 순간 밝게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분께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날 느낀 건 온갖 생각으로 자신을 짓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먼저 인사해 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면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영어도 걱정이 컸지만 짧고 쉬운 단어들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알아듣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한국어를 매주 배우고 계셔서 짧은 한국말을 구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례 걸려서 기침할 때에는 사장님께

서 “괜찮아?” 라고 한국어로 걱정도 해주시고, 짧게 다른 한국어도 사용하시는데 그 표현이 저희를 웃길 때가 있었습니다. 유쾌하신 사장님, 저를 담당해 주셨던 책임님, 편하게 대해주시는 다른 직원분들이 있었기에 이 회사가 너무 편했고, 실습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또한, 영어를 매일 접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습을 시작할 때인 3월에 코로나19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회사 업무량이 많아서 이전 실습생들이 퇴근할 때쯤이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다고 농담 식으로 들었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업무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로 외출 금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록시땅 본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저희 제형 임상 테스트 기관이 있는 태국 또한 코로나19사태로 임상센터가 운영되지 않아서 회사 계획이 모두 늦춰졌습니다. 제게 업무량이 적었던 것이 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전 실습생들과는 다르게 이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업무를 주기보다 오히려 업무량이 적어서 공부할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던 R&D 부서에 선임연구원님께서 직접 PPT를 띄어주시며 열정적으로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실리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혼자 원료 공부를 할 수 있게 원료 비교 실험도 도와주셨습니다. 책임님께서 매 주 새로운 원료들을 소개해 주면서 요즘 화장품 원료 트렌드에 대해 알려주시거나 흥미로운 논문 자료, 화장품 임상 테스트, 생명과학, 화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저에게 체계적으로 공부시켜주셨습니다. 또한, 원료회사 영업사원 미팅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 수 있던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실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 마지막 달에는 저만의 클렌징 폼을 개발해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이란 미를 위해 매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실습을 오기 전에는 화장품의 불편사항을 알아채도 제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볼 기회는 없었기에 너무 뜻깊고 즐거웠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핸드크림, 스킨, 로션 등 회사에서 제가 직접 만든 화장품 제형은 집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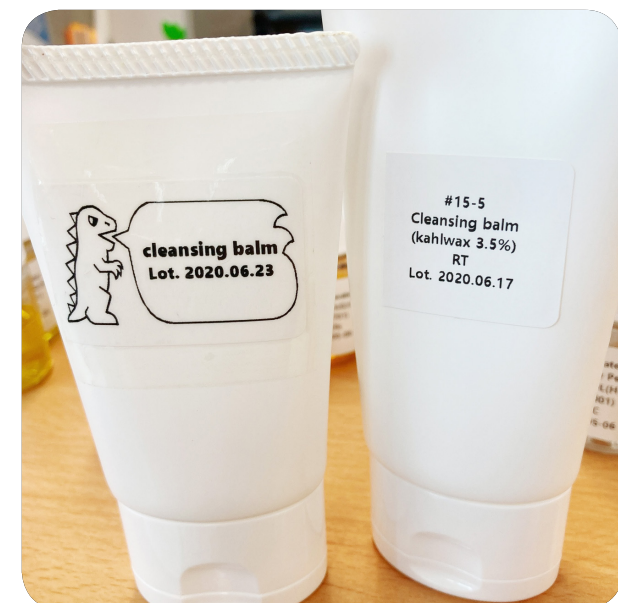
공부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업무는 화장품 경향 조사, 원료 보관, 제형 보관, 안정도 테스트, 천연색소 변화 관찰, 제형 제조, 각종 테스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형을 업체에 보내는 일 등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국내 화장품 회사들과는 다르게 일 년 계획을 미리 짜주시는 NPD팀이 있어서 제가 업무 중에 실수하게 된다면 일 년 계획이 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 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일을 뽑자면, 제가 처음 제형 제조 과제를 받았을 때 제형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 중인 원료의 양이 적지 않고, 처음 보는 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원료를 찾아다니느라 한 시간씩 쏟았었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셨지만 한 제형에 들어가는 원료량이 적어도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몇 개는 스스로 찾아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할 때마다 계속 제형 실험을 할 수 있고, 원료들 텍스처를 하나씩 비교해 보고 공부할 수 있어서 실습이 끝날 무렵에는 원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제형 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여유롭고 당차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단체 사진이 하나 있는데, 회사 창립일 기념으로 다 같이 출근 대신 남한산성으로 놀러 갔을 때 사장님께서 드론으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록시땅 기프트 화장품 박스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가구에 뿌리는 미스트를 손목에 뿌려서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저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선물 상자를 받았을 땐 실습 생활 중에 가장 기뻐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얻게 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다이어리 쓰기입니다. 다이어리에 하루 일과를 적고, 매일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이었고 주된 다이어리 내용은 이번 달 진행할 업무계획과 매일 해야 할 일을 정리해놓는 것입니다. 현장실습이 끝난 지금은 매일 하루 반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제 인생 멘토를 찾았습니다. 저를 지속해서 챙겨주셨던 책임님, 제가 현장실습을 그만둔 이후에는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다고 들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책임님은 저에게 열정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신 감사한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다른 학우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내가 지금 배우는 걸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몸소 체험하고 ‘좀 더 꼼꼼히 수업을 들었다면 좋았을걸.’라고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배웠던 걸 응용할 기회를 받았고,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저에게는 그날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학우분들에게 실습 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성실성, 꼼꼼함, 필기하기, 실수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드리기, 감사하다는 말 많이 하기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라 모두 알고 있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제가 항상 듣던 말이 있습니다. “너 정도 성격이면 어느 회사 가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입니다. 저는 게으름피우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을 혼자 찾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초반엔 실습에 대해 부정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출근하는 게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또한 인생 멘토를 찾을 정도로 의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우분들도 저와 같은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Turning Point

건축공학과 문 득 기



Turning Point

건축공학과 문득기

이번 연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학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며 저는 방학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4개월을 너무 한심하고 의미 없이 지내고 이제 졸업과 취업에 조금씩 걱정이 들면서 여름 방학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3학년 2학기를 맞이할까 두려워 현장실습 신청 문구를 보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나태해진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미래의 저의 직업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며 현장실습 기간 동안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자'라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습생 신분이어서 그런지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5일 동안 아침 6시 기상으로 피로가 쌓이는 것이 정말 체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없어지지 않는 피로감을 느끼며 여태 제가 너무 편안하게만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돼서 '나만 이런 건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다들 이런 피로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1주는 제 담당부서에 있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면담과 조언들을 통해서 건축에 해당되는 직업들이 정말 무수히 많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4년을 살면서 계획이라는 것을 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습기간 동안 제가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사 분들의 면담과 조언들을 참고하며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건축 쪽 직업의 종류들과 그 직업이 되기 위한 자격들을 토대로 저의 계획들을 짜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저의 미래계획을 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실습기간 동안에 한 뿌듯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다면 이제는 하루하루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작은 성취감이 저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며 작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주 차에는 1 대 1 면담을 통해서 제가 건축 쪽에서도 시공 쪽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 상무님이 공정을 맡으신 용인 보라동 타운 하우스 시공현장에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공사현장을 가봐서 처음 보는 것도 많고 수업에서 글로만 배웠던 것을 눈으로 보며 돌아다녔습니다. 상무님과 같이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시공이 잘못된 것과 건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수업 때 이해가 잘되지 않던 것들도 눈으로 직접 보며 상무님이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2주 차 말쯤에 용인 타운 하우스 공사현장이 작은 현장이고 공사 중단 상태이기도 하고 해서 아쉬우셨는지 저에게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시공현장에 일주일 동안 갔다와볼래? 라며 말씀해 주셔서 저는 3주 차부터 서울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사무소로 출근을 하니 본사와 다른 생활을 하고 계셔서 새로웠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할 때에는 아침, 점심 두 타임씩 시공현장에 나가서 구경하였습니다. 시공현장에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이사님과 함께 다니며 공사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용인 타운 하우스 현장에서는 보지 못한 것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잘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님이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든 계획을 하고 행동을 실행을 해라'인데

건축이란 거의 모든 일이 공정표대로 흘러가며 공사현장을 나올 때도 무엇을 볼지 생각을 하고 나가야 그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시간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4주 차에는 다시 용인 본사 사무소로 출근을 하며 상무님과 같이 본사에서 감리를 맡은 공사현장(신림동, 중산동, 서래마을)들에 갔다 오거나 사무실 근무를 하며 현장실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울 서래마을 고급 빌라 공사현장〉

저는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3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미래의 진로를 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안에서부터 불확실한 저의 미래를 걱정하며 진로에 대해 많은 방황들을 해왔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하여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미래의 목표를 정하니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속에 작은 계획들을 짜고 그 계획들에 맞춰 하루하루 생활을 해보니

쓸데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4학년이 되어가는 입장으로서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감입니다. 건축은 공정표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은 본인이 해결하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 힘들어 예민해지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의견충돌이 큰 싸움으로 번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럴 때에는 서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배려하며 의견을 조율을 해나간다면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저희 학교 후배님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의 자신의 직업을 미리 체험을 해본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장실습을 신청하였다는 것 자체로도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섰다고 생각이 들고 신청을 하셨다면 그 표현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실습을 하게 되면 상사 분들도 각자 자신들의 할 일이 많아서 항상 실습생들을 챙겨주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많은데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에 따라 현장실습 체험의 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짜서 보람차게 현장실습을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사사무소(광장)에서 2020.07.02.~2020.07.29까지 현장실습을 하였던 건축공학과 문득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신림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무릉도원[武陵桃源]

융합디자인학부 문채영



무릉도원[武陵桃源]

융합디자인학부 문채영

‘무릉도원’은 ‘마음속으로 그리는 동경의 세상, 즉 이상향’이다. 나의 ‘무릉도원’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패션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꿈꿔온 무릉도원이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어떤 직업이, 또 어떤 작업을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랐고, 패션 분야에 정확하게 무슨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었다. 이런 나에게 2학년 2학기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패션 스타일리스트 팀에서의 현장실습 기회였다. 나는 고민도 않고 주저 없이 바로 지원했다. 이 기회는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고, 나랑 잘 맞는 직업인지 또 이 직업의 매력은 무엇인지 바로 옆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내가 현장실습 다녀온 하누기 스타일리스트 팀은 풀김, 옥택연, 로이킴, 시적화자, 지수의 전담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영화 포스터 촬영, 브랜드 룩북 광고 촬영, 제품 촬영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동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팀이다. 나는 현장에서 어시스턴트 역할로 실장님을 보조했고 그림으로써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다.

나는 대개 브랜드 룩북 광고 촬영을 다녔다. 스튜디오에 도착하면 사무실에서 넘어온 엄청난 양의 신발들과 액세서리, 양말 등을 싸온 몸보다 큰 가방에서 꺼내 실장님이 보시기 편하게 정렬한다. 그 후엔 컬렉션 착장들을 촬영 순서에 맞게 정

리하고 스팀다리미로 다림질해 옷의 구겨진 부분들을 정리해 주며 라벨들을 제거하고 단추를 풀어두는 등 모델이 갈아입기 편하게 준비해준다. 실장님이 착장에 맞는 신발, 양말, 액세서리 등을 맞춰주시면 그대로 모델에게 입혀 촬영을 진행한다. 또, 촬영 중에는 급히 필요할 수 있는 테이프 클리너, 핀 쿠션, 고무줄, 쪽가위 등을 챙겨둔 가방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옷매무새가 틀어지면 재빠르게 바로잡아 줘야 한다.



〈첫 촬영 현장 [NII 20's ss]〉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미숙했다. 나의 첫 현장은 배우 송강 씨와의 NII 20's ss 광고 촬영이었다. 송강 씨는 꽤 개구진 성격이었는데, 처음 보는 나에게도 장난을 치실 정도였다. 평소 내 성격대로라면 웃으며 유쾌하게 장난을 받아줬겠지만 어리둥절 눈치 보기 바빴던 나는 장난을 받아 줄 여유가 없었다. 어색함을 푸시려고 치신 장난이셨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하다. 또, 원래는 스타일리스트가 탈의실에 함께 들어가 옷을 갈아입혀드려야 하는데 나는 그럼 안 된다 생각해 송강 씨가 탈의실에 불러도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직장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얼마나 어이없어 하셨을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 간다. 만일 다음에 송강 씨를 또 다른 촬영에서 뵈게 된다면 정말 신경 써서 잘해드릴 것이다.

동계 실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촬영은 단언컨대 Andrew 20's ss 촬영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강남 테오 M 스튜디오에서 패션모델 김봉우 씨, 안재형 씨, 김도현 씨와 촬영했는데 역시 패션 전문 모델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모델분들의 위킹과 포즈 하나하나에 나의 입에서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다. 함께 촬영한 팀장님이 촬영장에서 나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반짝였다고 한다. 이 촬영이 좋았던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모델 안재형 씨는 내가 예전부터 동경 해오던 모델 중 한 분이셨다. 좋은 내색은 안 했지만 함께 촬영한 게 스스로 뿌듯하고 기뻐다. 또 모델 김도현 씨가 나에게 살갑게 먼저 다가와 주고 알고 보니 나이까지 같아 촬영장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들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실습 처음으로 팀장님께 칭찬받은 촬영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완벽했다 생각이 드는 촬영이다.



〈NII 20's ss 룩북 이미지 중〉

나는 첫 실습 때 팀원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일에 흥미도 느껴 동계 현장실습에 이어 하계 현장실습까지 두 번 다 하누기 스타일리스트 팀으로 갔다. 따라서 ss와 fw 룩북 둘 다 촬영한 브랜드가 총 2개 있다. 먼저 GGIO 2는 배우 변요한 씨와 함께 촬영했다. fw 촬영 때도 정말 매너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ss 촬영 때는 두 번째라 그런지 얼굴도 기억해 주시고 훨씬 더 친절하시고 유쾌하셨다. 촬영이 끝나면 항상 실습생인 나한테까지 찾아와 악수를 해주시며 시사회 때 보자는 우스갯소리와 함께 인사를

꼭 하신다. BANG BANG도 두 번 다 김민규 씨, 강미나 씨와 촬영했지만 GGIO 2와 달리 별다른 이야깃거리는 없다. 두 번 촬영 간 브랜드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와 달리 확실히 그 브랜드 고유의 느낌과 분위기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 알 수 있어 진행하기 수월했다.

마지막으로 씨 내려갈 촬영은 바로 배우 정해인 씨와 함께한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에서의 남성복 브랜드 AND Z의 20's fw 룩북 촬영이다. 이 촬영이 특별한 건 원래 모든 현장엔 실장님과 어시스턴트 그리고 실습생 총 3명이 다니며 어시스턴트가 하는 일을 보며 실습생이 어깨너머로 눈치껏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라면 이번 촬영엔 어시스턴트 없이 실장님과 실습생인 나 2명만 현장에 가서 실습생이 아닌 진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의 모든 역할들을 1부터 10까지 전부 수행하고 왔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땀 흘리며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실습하면서 그날만큼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날은 없었다. 감히 예상해보자면 애초에 실장님이 직원 없이 실습생인 나 1명만 어시스턴트로 현장에 데려갔다는 건 어느 정도 나를 믿으셔서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열심히 했다. 무턱대고 자만감에 넘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다. 1월 동계 현장실습 때 내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인 거 같다. 스타일리스트를 추천해 주시며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졸업 후에 팀에 들어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한 실습 기간이 끝난 5월 27 일에도 영화 '새해 전야'

포스터 촬영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헬퍼로 다녀온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내가 이 촬영을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고 느껴 더욱이 집중하고 진심을 다해



〈Andrew 20's ss 현장〉



〈GGIO 2 ss 현장 [1월]〉

촬영에 임한 결과, 끝나고 파주에서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실장님께 칭찬을 해주셨다. 실장님께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주신 건 처음이라 나에겐 무척이나 뜻깊었다.

어쩌면 나의 '무릉도원'은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삶일지도 모르겠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항상 실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다. 실습 가장 마지막 날 차에서 내가 꿈꾸는 '무릉도원'에 대해 설명드리니 실장님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촬영 배경이 해외인 경우에는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패션 스타일리스트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스케줄이 없지만 원래는 해외 촬영이 꽤나 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스타일리스트 직업이 적성에 잘 맞는다 생각해 이 직업군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마음속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실습을 통해 나는 내 미래 직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나는 패션 전문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과 만나 인맥도 얻었고, 인터넷에 찾아서는 나오지 않는 귀한 정보들도 많이 얻었다. 뿐더러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센스와 지혜는 정말 귀한 나의 보물이 되었다.

하누기 스타일리스트 팀의 이한욱 실장님은 세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제1회 졸업생이다. 나도 졸업 후에 후배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소중한 시간과 배움이라 생각한다. 곧 현장실습에 참가할 후배들은 실습 전에 이를 깨닫고 실습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배움의 기회를 그저 학점 따기와 용돈벌이로만 생각하며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정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금과 같은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GGIO 2 fw 현장 [8월]〉



〈AND Z 20's fw 현장 [머리 묶은 여자가 접니다]〉

비록 위에 적은 내용들처럼 마냥 즐겁고 새로운 경험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내용은 실습의 극히 일부분이고, 현장에 나가서 뿌듯함을 크게 느끼는 이유는 그 현장 촬영을 위해서 대행사에서 협찬받는 과정에 엄청난 중노동이 숨어있어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다. 또 내가 주로 다닌 광고 촬영 현장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하누기 스타일리스트 팀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팀이라 하누기 스타일리스트 팀으로 현장실습을 지원한다면 영화 포스터 촬영이라던가, 제품 촬영 혹은 드라마 캐릭터에 맞는 코디 등 다양한 일들을 배워볼 수 있을 것이다.



〈5월 27일 영화 '새 해전야' 포스터 촬영〉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사회복지사로서의 한걸음 더

사회복지학과 김 형 근



사회복지사로서의 한걸음 더

사회복지학과 김 형 근



이번 현장실습에는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엘림의 집과 정신건강 센터와 연계해서 발굴된 가정인 대상자는 3남 1녀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이었습니다. 둘째의 딸이 막내 2명과 방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점차 성장해가면서 방을 혼자서 사용하고 싶다는 욕구를 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3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1번 방은 첫째가 사용을 하고 2번 방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마지막 안방은 막내 2명과 딸이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2번 방인 옷방에 있는 장롱을 전부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제천시 사회복지 협의회에 연락이 닿아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거환경을 통해 한 아이의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례관리, 가정방문,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함으로써 직업의식에 대해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학문적으로만 배웠던 사례관리 및 발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과 행동양식에 대해 배웠지만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으로 대상자와 만나 상담과 진행 유형 등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학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천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례관리를 경험하면서 사회복지사는 한 사람의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동반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의 나아가는 길에 대한 환경과 방향을 변화를 주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2번의 실습을 진행합니다. 3학년 때의 하계실습과 동계 실습, 저 또한 하계와 동계 실습을 진행하면서 전문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 현장과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의 실습을 진행하면서 프로포절 작성 및 문서작업과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천 현장에 대한 사례관리나 가정방문 등과 같은 기술들을 코로나19의 여파로 배움의 기회가 부족하였

습니다. 어느 날 세명통통에서 직무체험에 대한 공지가 올라와서 찾아보던 중 제천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례관리 가정방문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 이번 기회에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그 어떠한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직업이 되는 것이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게 하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과 학생들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또는 필수 실습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아니면 맞지 않는지를 찾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하계 현장실습하기 전에는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잘 해내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인가? 나에게 맞는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계 현장실습을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복지사로서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과 불신을 하는 후배들이 있다면 이번 하계 현장실습을 제천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직업의식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전공역량강화 현장실습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장 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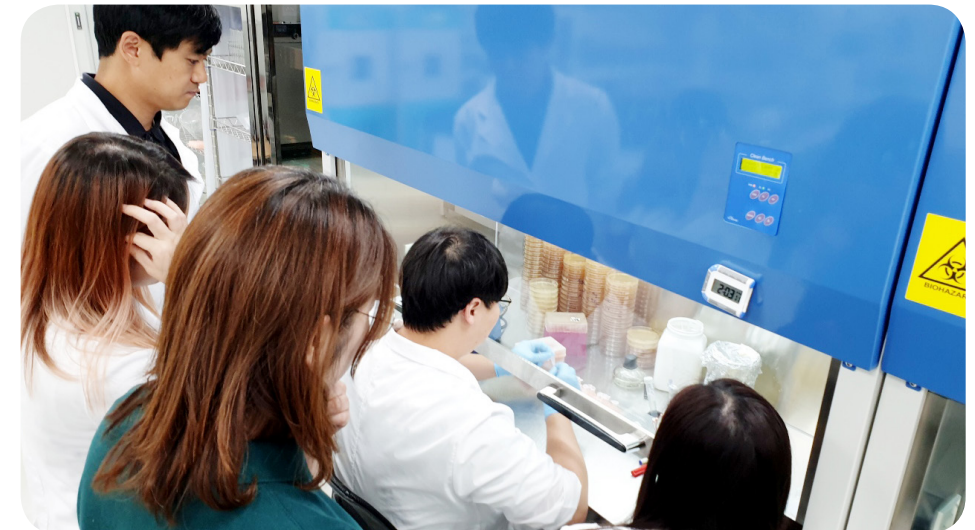
전공역량강화 현장실습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장 나 영

이번 하계현장실습 기간에 건강기능 식품회사인 ‘메디오젠’의 중앙연구소팀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부 시절 배웠던 전공 능력을 토대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관한 관련 실험 및 분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9 건강기능 식품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6년 약 3조 6000억원의 시장규모가 2018년 약 4조 6000원으로 24% 성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05년 6860억원에서 2015년 1조 8230억원으로 10년간 165% 성장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2조 5220억원으로, 2005년 대비 276%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가는 동시에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안전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 식품과 웰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증가하여,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디오젠’은 유산균의 항균활성 및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성에 대해 선두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라는 점이 바이오산업 및 건강기능식품의 가치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은 총 6주에 걸쳐서 끝났습니다. 첫날에는 clean bench내 무균

작업 학습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clean bench는 무균 대라고 하여 미생물 실험을 하기 위한 무균 작업대입니다. 이 작업대 안에서 생균수 분석 및 미생물 배양 배지 사전준비 활동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파이펫 속지법, 현미경 사용법으로 간균 구균 구분 확인, Streaking과 Spreading으로 균 분리, 미생물 동정실험, DNA 추출 및 PCR 실험 등 배웠습니다.



〈사진1〉 Clean bench내 무균 작업 활동



〈사진2〉 Fermenter를 이용한 계대배양

가장 기억에 남은 실험활동은 <사진 2>의 계량배양을 위한 계대배양(스케일 업을 위한 계대배양) 실험입니다. 10ml의 시험관 스케일에서 4L 본 배양에 들어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실시합니다. 4L 본 배양은 Fermenter 기기를 이용합니다. 이 실험은 배지를 만들고, Fermenter를 조립하여 접종, 검정 등을 하여 미생물의 Growth curve를 도출해 내는 실험입니다. 먼저 배지와 DW(증류수)를 이용하여 4L를 맞추어준 후, Fermenter 조립을 해주고, Impeller를 가운데에 꽂고 4L 배지를 넣은 후에 Impeller 축에 맞춰 뚜껑을 닫아주고 평형을 맞추기 위해 나사를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 줍니다. 그다음 유리 냉각관으로 되어있는 Condenser를 조심하여 끼워주고 크기에 맞는 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멸균을 돌리기에 앞서 Inoculation port를 열어 압력에 의해 fermenter가 터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에 배지도 같이 멸균시켜주도록 합니다.



<사진3> Fermenter 멸균 전 작업 준비

<사진3> 나와 있듯이 집게로 집은 feeding port, sampling port, 공기 주입구 부분에 호일을 꼼꼼하게 감싸 준 후, Autoclave에 121°C에 20분 동안 멸균을 해줍니다. 정해진 시간 후에 Inoculum 2% 접종해 주는데, 이때 Inoculum port를 직접 열고 접종해 주는 것이므로 오염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port 주위를 솜으로 감싼 후에 탄올을 부어 화재 위험에 주의하며 불을 붙여 화염멸균을 해준 후, 빠르게 전 배양한 Inoculum을 넣어 준 후, port를 닫고 불을 꺼줍니다. 그 후, Sample

을 채취하여 현미경, Spectrophotometer(OD/흡광도 측정), ph meter(산도 측정)로 검정을 해주며 균주를 관찰합니다. 위 실험을 통해 고찰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본 배양인 4L Fermenter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균, 전, 중간배양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미생물을 배양할 때 미생물들이 모두 같은 조건에 존재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균들은 바로 성장하고 어떤 균들은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과정을 거쳐줌으로써 미생물들이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하여 여러 실험이나 연구에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배양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 실험을 통해 미생물학의 미생물 배양에 대한 전공지식을 정리해 볼 수 있었고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활동을 통해 전공 능력을 살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학부 생활에서 느낄 수 없던 현장 분위기와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과 예의와 존중, 경청의 자세를 배우고 역량개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구원분들이 해주셨던 조언과 회사에서 배운 현장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다음 실습활동 혹은 취업에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에 현장실습활동을 가게 될 학생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학부의 연장선이라는 마음가짐이 아닌, 진짜 회사에 취업했다는 생각으로 정중하고 진지하게 실습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부분 현장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듣게 되는 영어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꼭 메모할 필기구를 챙겨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 식품산업, 미생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온다면 본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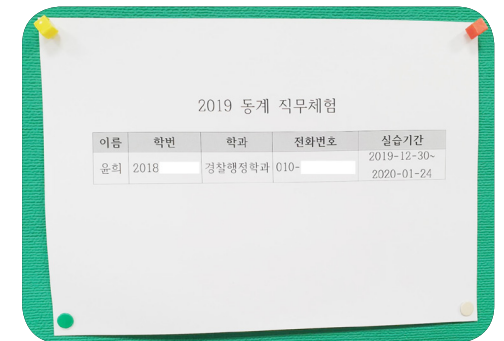
처음으로 워커홀릭을 경험하다.

경찰행정학과 윤 희



처음으로 워케홀릭을 경험하다.

경찰행정학과 윤 희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같은 과 친구의 말을 듣고 신청했던 현장실습을 붙었다. 친구가 소개해 줬을 때 호기심과 앞으로의 취업 현실을 생각해서 몇 없는 자격증까지 모아서 지원서를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다. 흔히 한다는 아르바이트도 해보지 않아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해보는 나는 첫 출근 날부터 엄청 긴장을 했던 것 같다. 바로 옆 학교지만 대원대학교에 출근을 하면서 처음 외파서 본관을 찾는 것도 헤맸다. 약 10명 정도가 함께 대원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5명은 도서관으로 배정되고 남은 5명은 각각 다른 부서로 배정되었다. 그중에서 나는 교육혁신본부로 배정이 되어 본관 2층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첫 출근 아침이 생각난다. 12월 마지막 주였던 추운 겨울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현장실습 담당 선생님과 교육혁신본부문을 열고 인사하고 들어갔을 때 7명의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셨다. 그렇게 나의 4주 동계 현장실습이 시작되었다.

첫날엔 본격적인 업무를 하기 전에 과장님으로 불리던 선생님과 둘이 상담도 하고 부서 설명과 더불어 주요 업무 안내, 안전교육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었다.

내가 하게 될 일들은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일들이었는데 한 달을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기에 옆자리 선생님께 이전 방학에 같은 과 학생이 실습을 잘 마치고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수기집에 실렸던 같은 곳에서 일했던 같은 과 선배님 글을 참고했던 것 같다. 나의 한 달간 현장실습은 사무실 안에 모든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지만 옆자리 선생님이 나를 관리해 주셨던 담당자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하나하나 잘 알려주셨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나의 주된 업무는 사무실에 있는 물통을 채우거나 티스폰을 닦아두는 일, 금요일에 화분에 물을 주고 월요일에 가져오는 일, 쓰레기통 비우기나 금요일 퇴근 한 시간 전 모든 선생님들과 청소하는 일 같은 제일 기본적인 일이었다. PPT를 만드는 작업을 첫 주에 했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예시를 보고 똑같이 만드는 일이었다. 색깔을 조화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했던 것 같고 나의 긴장되고 어색했던 첫 주는 휴일(신정)과 시무식 때문에 금방 지나갔다. 참고로 교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시무식이나 교직원 행사가 있는 날엔 교직원 식당을 사용하지 못해서 친구들이랑 세명대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선생님들께 일을 받아서 했었는데 주로 한글 문서 작업을 제일 많이 했다. 학과 별로 과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시는 것 같았는데 그 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써져 있는 한글 문서를 보기 편하게 정리하고 오탈자보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세 번째 주엔 한글 문서였던 복사본인 원고를 검토하는 작업을 했었다. 과목 코드나 분류가 많이 되어 있는 과목들을 모두 점검했어야 했는데 오타자를 점검하고 보기 좋게 정렬을 맞추느라 연필을 들고 하루 종일 원고만 들여다봤다. 또 기자재 현황에 추가할 것들을 정리하거나 강의평가를 분류하는 엑셀 작업을 했었다. 세 번째 주가 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원고를 정해주신 날짜까지 수정해야 했는데 강의평가를 분류하는 것도 해야 했기에 혼자 집에 가서도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 주에는 설날 때문에 목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었고 목요일은 설날로 인해 단축근무로 2시까지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끝난 날이었는데 아쉽기도 하고 나에게 일을 주시던 선생님이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들도 많다는 걸 알아서 퇴근 전까지 많이 해두고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점심도 안 먹고 2시까지 원고만 보다가 나의 현장실습이 끝났다.

두 번째 주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았던 날도 기본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는데 일에 한번 빠지니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나도 몰랐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해줄 정도였다. 일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지만 선생님들께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대원대학교는 제천시에 위치해서 제천에 사는 나는 출퇴근하기 편했고 사립 전문 대학교로 실습 여건이 매우 좋았다. 교육혁신본부에서 행정업무 및 대학교 운영에 대한 업무를 직접 보고 배우며 졸업 후 공무원이나 행정직이 되려는 나는 실습기관에서 매주 바쁘게 선생님들과 어우러져 일을 하면서 졸업하기 전 업무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번 현장실습이 좋았던 이유는 물론 어디서도 해보지 못할 업무들을 미리 해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과 나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은 일을 하러 간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고 나 역시 첫 주에는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적응이 되고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즐겁기도 했고 전에 주변에서 듣기로는 현장실습에 가면 일을 시키지 않는 곳도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원대로 실습 온 친구 두 명이 같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들보다 업무 분량이 많았다. 오히려 업무를 하면서 실습 기간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더 좋았던 시간이었다.

출근을 항상 30분 일찍 해서 준비를 하며 일을 시작했고 일이 많을 때는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일을 끝내려고 했다. 주변 선생님들께서는 쉬면서 하라고 밥 먹으러 가자고 챙겨주셨지만 나는 정해진 기간까지 주어진 업무의 양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스스로 점심보다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물론 내가 했던 일들은 계속 일하셨던 선생님들의 업무에 비하면 체험 수준이지만 진짜 취직한 것처럼 업무를 처리해보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어울리면서 정도 많이 들고 오히려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게 아쉬웠다. 같이 한 달 동안 일한 선생님들과의 일들이 나에게 값진 추억으로 남아있다. 중간 중간 선생님들과 가진 간식 시간이나 점심을 안 먹은 날 챙겨주신 먹을 것들,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사 오셔서 선생님들과 다 같이 나눠먹었던 과자까지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난다.

대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에서 일해 본 나는 다음 현장실습도 여기서 하고 싶고, 이런 직장이라면 계속 근무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향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이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가할 후배들이나 참가하길 망설인다면 적극 권장한다. 현장의 분위기와 미리 접해본 업무들이 미래의 직장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믿는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산삼배양근 조직배양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도 효 은



산삼배양근 조직배양

바이오제약산업학부 도 효 은

지도 교수님 밑에서 미생물 실험실에서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여러 미생물 배양 실험을 했었다. 효탕물에 존재하는 미생물, 장아찌류에 있는 미생물, 손톱에 있는 미생물, 강아지 번에 있는 유산균, 고양이변에 있는 유산균 등 미생물 논문 공부와 함께 배양 방법과 그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조건에 맞게 배지를 제조하여 균을 키우고 single colony가 확인되면 균체지방산 분석과 HPLC 분석을 통해 이 미생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미생물 배양과 달리 식물 배양은 뭐가 다른지 배양 방법과 배지 종류, 배지 제조방법, 배양조건들을 비교하고 알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가하게 되었다. 산삼 배양근을 배양하는 탱크와 농축, 추출기 사용 방법, CIP 등을 직접 사용해보았다.

산삼 배양근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배지 제조 방법과 증류수의 양, 씨드 배양기 멸균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배지를 직접 제조해보았다. 미생물 배지를 제조하는 것과 식물 배양하는데 필요한 배지를 제조하는 방법이 다른 줄 알았는데 필요한 시약이 다를 뿐 시약 하나하나 측량하여 혼합 후 pH 확인 후에 Autoclave 하여 멸균시킨 후 Petri plate에 적정량 부어준 뒤 식힌 후 보관하는 방법이 미생물과 비슷하였다. 또한 여러 꽃들의 근과 세포를 계대 배양하기 위해 멸균 작업과 계대 배양하는 방법 등을 직접 보고 배워 새로운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산삼 배양근 5톤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배지를 제조하기 위해 설탕 15kg가 10포대 이상 들어가고 여러 호르몬과 큰 단위의 시약들이 들어가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산삼 배양근이 자라는데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데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선 MJ 처리를 한다. MJ 처리를 하게 되면 산삼 배양근이 더 잘 자란다고 한다. 산삼 배양근이 다 자라게 되면 수확을 하게 되는데 현장 실습하는 동안 총 2톤과 10톤 씨드 배양기에서 산삼 배양근을 수확해보았다.

산삼 배양근을 4번 세척해서 운반 상자에 담은 후 판에 얇게 올린 후에 열풍건조기와 동결건조를 시켰다. 2톤을 할 때에는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10톤 할 때에는 하루 종일 걸린 것 같다. 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같은데 다음날 어깨와 팔에 잔 근육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직접 수확한 열풍 건조시킨 산삼 배양근을 추출 농축기에 넣고 추출 후 농축하여 산삼 배양근 농축액을 만들었다. 제조된 농축액에 홍삼 농축액을 혼합하여 당도를 체크한 후 파우치 기계에 110ml 씩 포장하여 산삼 홍삼 농축액 파우치를 만들었다.

파우치까지 하는데 총 2주 정도 걸렸는데 시중에서 파는 한약 제조과정과 비슷하다고 한다. 직접 수확하고 만든 농축액이라 뿌듯하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GMP EFfCI 컨설팅 강의를 들었는데 화장품 제조하는데 GMP가 필요한지 처음 알게 되었다. GMP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확인되어야 하는지 필요조건과 장비들 점검 등을 확인하고 작성 방법 등을 배웠다. 전공과목으로 GMP&Validation을 수강하였는데 대략적으로만 배웠던 것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장실습을 참가하게 된 계기가 단지 미생물 배양 방법과 식물조직 배양방법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였는데 막상 실습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돈 주고 못 배울 기술도 배운 것 같아서 좋았다. 동결건조하는 과정에서 직접 시간 설정하도 하고 관찰하면서 건조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결과물을 보는 데에서도 기계 설정 방법과 사용 방법, 건조물 수확하고 진공 포장을 하였다. 우리 손으로 직접 한 건조물을 성분분석 후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듣고 뿌듯하면서도 신기했고 마냥 실습이 아닌 성취감을 통해 우물쭈물하던 내가 자신감이 생겨 다음번에 할 때 설정하고 수확하는데 당당해지고 과감해지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이었지만 4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공부하고 직접 참여해보고 제품까지 만들어보면서 강의나 수업만이 공부가 아닌 현장에 나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참여하는 것 또한 큰 공부가 아닐까 싶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나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직무에 대해 찾아보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학교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기업에서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직무를 탐색하여 신청한다면 이것 또한 취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다. '내가 그 기업에 현장실습 참여 학생으로 들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비록 학생신분이지만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의 기술을 배우면서 돈보다 값진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얻었으며 지식을 배웠다. 미생물 실험실 연구생으로 있으면서 사용했던 실험 방법과 다르게 식물 조직 배양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웠고 새로웠고 값진 경험을 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느꼈으니 후배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6주간의 성장 통

광고홍보학과 김민선



6주간의 성장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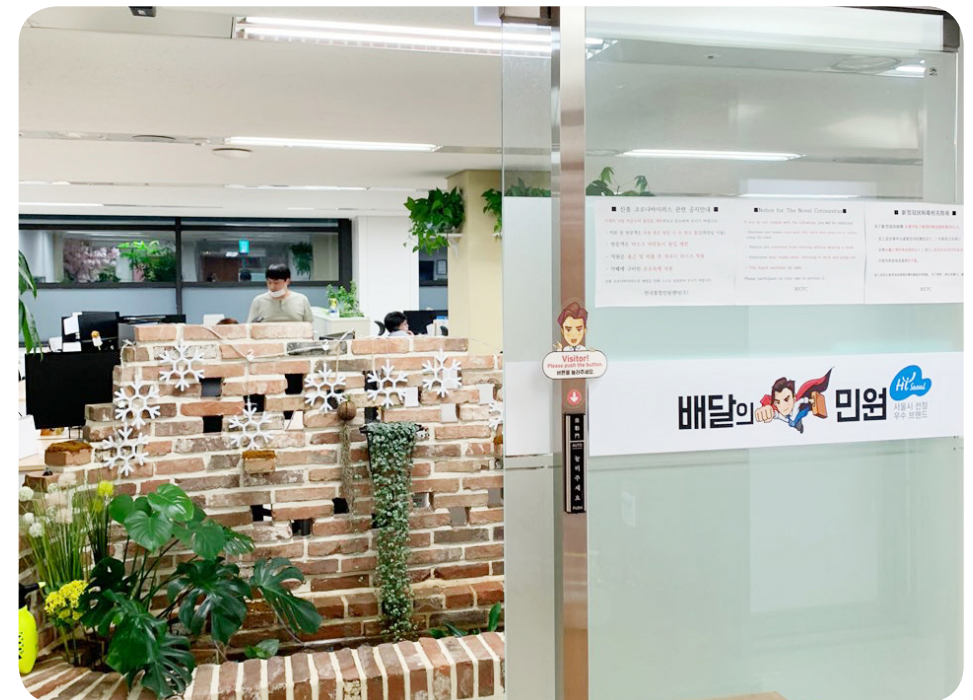
광고홍보학과 김민선

나는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통합민원센터” 마케팅부서에서 6주간 현장실습을 하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5년 5월에 설립된 회사로 번역, 등본, 아포스티유, 대사관인증 등 각 전문 포털서비스를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있는 서류발급회사이다.

나는 내 전공을 살려 마케팅 부서에 지원하게 되었다. 마케팅 부서가 하는 일은 sns관리, 검색광고 관리 등 다양하지만 내가 6주간 했던 일은 sns관리였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서류에 맞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서류 내용과 함께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일이다.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일은 전공 시간에 수도 없이 하여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류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간단한 서류들만 알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서류들을 알려줘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 많은 공부를 하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실습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현장실습생이 참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 중 나는 회사 내 현장실습생을 주체로 진행되었던 “광고 공모전”에 참가하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알리는 광고를 기획하는 것이 공모전의 주제였으며 많은 학교의 현장실습생 분들이 참여하였다. 나는 광고홍보학과 학생으로 기획서 작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재밌게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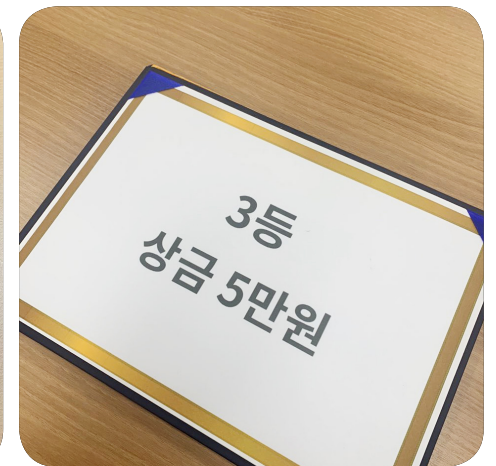


내가 기획한 광고는 핸드타일 광고이다. 휴지를 뽑으면서 서류를 뽑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하여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서류 회사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함이 목표였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회사 이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획하였다.





발표 당일 사장님과 이사님 마케팅부 과장님 앞에서 발표를 진행해야 했다. 교수님 앞에서 발표했을 때와는 정말 다른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매번 우리 과 친구들의 발표만 들어보다가 다른 학교 친구들의 발표를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의 발표를 보며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3등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며 난 그 등수에 대해 만족하였다.



이번 현장실습은 나에게 성장통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사람이 성장을 하려면 겪는 아픈 성장통처럼 내 스스로 꿈을 찾고 더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이 성장통의 계기로 더 내 자신에 대해 알았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내 후배들에게 다양한 현장실습의 경험들이 학생의 신분을 벗고 사회에 나갔을 때 나의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현장실습.
더 높이 날기 위한 도약의 발판.

경찰공공행정학부 온 명 진



현장실습. 더 높이 날기 위한 도약의 발판.

경찰공공행정학부 온 명 진

1. 현장실습 참가 동기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갖고 경찰행정학과를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전역 후 2, 3학년이 지날수록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경찰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불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부터 같은 대학, 같은 과로 학교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가 패배자처럼 마냥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현장실습을 참가해보라고 권해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조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근심 걱정만 하는 바보가 아닌 내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현장실습 참가 중 겪은 에피소드

이 직종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어려운 두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청원경찰 반장님과 식사교대를 하고 난 후 부부 두 분이 상기된 표정으로 은행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기도 하였고 한 창 바쁘던 시간이었기에 대기를 하시던 와중에도 많이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고객님의 번호표가 불리고 창구로 가셨는데 반장님이 계시지 않아 창구에서 저를 불러서 가보았습니다. 두 분이 카드를 분실하시고 카드로 개인정보를 얻게 되어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두 분을 진정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기에 업무가 처리되는 15~20분 동안 창구에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최대한 두 분을 진정시켜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처리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분이 오셔서 저와 창구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커피를 사다 주셨습니다. 평소 서비스 직종에서 알바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정과 뿌듯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ATM 기계에서 150만원을 입금하셨는데 통장에 70만원만 들어왔다고 확인해달라는 고객님의 계셨습니다. 때문에 창구로 안내해드리고 잠시 후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의께서는 5만원권과 1만원권을 나눠서 총 150만원을 넣었는데 5만원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시고 대리님께서 확인해본 결과 5만원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께서는 계속 확인해서 잘 넣었다고 하시기에 대리님께서 기계를 다시 확인하러 가시면서 저에게 고객님의 가방, 차 안을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리님께서 기계 확인하러 가셔서 기다리시는 동안 소지품과 차 내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전하였는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냐, 왜 믿지 않느냐, 확인했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화를 내시고 기계 확인 후 기계이상 없다고 하시는 대리님께도 화를 내시고 은행 욕을 하시고 가신 고객님의 계셨습니다. 평소였으면 저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화를 냈을법한 상황임에도 현재 책임감을 갖고 근무하는 실습생으로서의 신분을 자각하여 고객님의 진정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겪고 난 후 서비스직의 따뜻함을 알게 되었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마냥 따뜻한 직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현장실습 참가 후 얻은 것은?

저희 과는 전공 특성상 두 가지의 선택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와 취업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민만 하며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현

장실습이라는 4주간의 시간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의 정보, 직종, 직무, 심지어 월급 등 이러한 방면에서 무지합니다. 관심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나는 경찰이 될 것인데 알아야 되나’라는 핑계로 노력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는 현장실습을 통해 선택의 기로가 적다고 생각했던 저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이 적지 않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을 여럿 만나면서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궁금하고 모르는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책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는 중요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에피소드들과 같이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겪어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업무의 애로사항, 스트레스, 곤란함과 그 안에서 오는 뿌듯한 성취감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4. 현장실습 참가 후배들에게 권장하는 사항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학점을 현장실습 참가 후 얻게 되는 특별학점으로 채우기 위해, 실제 현장 실무를 경험하기 위한 이유로 현장실습을 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만약 실제 현장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며 참가를 결정하였다면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또는 희망하는 직종 업무를 참가하기 희망합니다. 몇몇의 학생들은 출퇴근 가까운, 친구 선후배를 통해 들어 복지가 좋은, 몸이 편한 현장실습을 찾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4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저 앞에 보이는 편안함을 위해 실습장소를 결정하고 편한 곳만을 추구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을 살릴만한 업무를 찾던 와중 신한은행 청원경찰의 업무를 도와줄 인원을 모집하여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경험으로 현장실습을 참가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희망하는 직종과 유사한 곳으로 참가하길 권장합니다. 교수님과 선후배에게 듣고, 각종 sns, 인터넷 데이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무 중 받는 스트레스, 애로사항, 곤란함 등을 자신이 버틸 수 있는지, 이 직종이 적성에 맞는지는 실제로 근무하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경비업무가 단순히 출동과 순찰만 하면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안에서 고객을 상대하고 기계관리 등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명대 학생들 모두 학교에서 제공

하는 현장실습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한 모든 사례

4주간 근무하면서 많은 관심 주시고 실습생이 아닌 동네 형, 누나, 아버지와 같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신한은행 모든 직원분들과 4주 동안 따뜻하고 맛있는 밥과 자취방에 가져갈 음식까지 챙겨주신 식당 이모님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무사히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던 출입구 위치에서 찍은 사진〉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장마 속에서
4주간 행복하게 살아남기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김민승



장마 속에서 4주간 행복하게 살아남기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김민송

세명대학교 임상지원센터(RIC) 실습 하루 전 부모님의 차를 타고 기숙사로 갑니다. 실습 하루 전날부터 비가 심하게 와서 부모님이 운전하기에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숙사에 무사히 도착하고 짐을 풀고 내일 실습하는 날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최근 들어 제일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마냥 비가 쏟아져 내리는 박을 보며 '첫날부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며 속상한 기분을 안고 실습기관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기관에 딱 도착하였는데 바지와 신발이 흠뻑 젖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고 반겨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습생이 저 뿐만 아니라 저의 과 후배 1명도 있어서 웬지 모르게 반갑고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주간의 실습 생활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유유히 지나갔고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한 업무는 임상시험 때 필요한 화장품 용량측정을 하였습니다. 용량이 다르면 제품에 대한 반응과 효과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품 시험 전에 화장품의 용량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관리, 연도별로 임상시험 완료 보고서들



〈문서 정리하는 모습〉

을 정리하였습니다. 문서 정리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실습에서 문서 정리를 많이 하며 문서 정리하는 요령을 많이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주요 업무는 피험자들 모집과, 피험자들이 오시면 시험 진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시험 전 대기피험자들의 명단을 보며 시험 참여 여부를 물어보고, 참가 가능하신 피험자들이 오시면 시험을 진행합니다. 저는 기능성, 여드름 팀에서 일을 하였는데, 여드름제품을 8주간 사용한 후 제품의 기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험자들이 2주, 4주, 6주, 8주마다 기관에 오셔서 피부측정을 하는데 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험자분들이 사용하신 제품들의 무게를 체크하였습니다. 이렇게 항상 측정을 해야 좀 더 측정결과가 명확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무게측정 하는 모습〉

안정성 시험은 기관으로 의뢰가 들어온 제품들을 패치의 크기에 맞게 피펫으로 동일한 양으로 올린 다음 패치를 피험자의 등에 붙여 3일간 방치 한 후 육안으로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마스크 팩인 경우에는 패치의 크기에 맞게 올린 후 패치에 올려놓고 시험을 진행합니다.



〈의뢰 들어온 제품들〉



〈피험자 등에 붙이는 패치〉



〈패치 크기에 맞춰 마스크팩 자르기〉

비누나 폼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에 희석을 하여 용액 상태로 만든 다음 시험을 진행합니다. 3일 뒤 피험자들의 등에 붙여있는 패치를 떼어 피부의 붉은기나 부어오름을 관찰 합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서 헛갈렸지만 연속적으로 시험을 진행할수록 전 상태와 현 상태의 차이점이 잘 보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 변화를 관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시험을 통해 어떤 특정한 제품이 피부 자극을 일으킨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피펫을 활용한 업무가 많았는데 학교에서 실험할 때 피펫을 많이 이용해보아서 익숙하게 업무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화장품에 관한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기기 시험 의뢰도 들어옵니다. 혈액순환 증진 효과가 있는 제품의 기기가 들어와서 피험자분들이 직접 기기를 사용하며, 기기 사용 후 종아리의 혈액 상태를 기기로 촬영하여 혈액순환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

하는 실험도 하였습니다. 실습의 마지막 주에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ANTERA 3D 기기로 직접 피험자분들의 피부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이 기기는 주름, 유분, 여드름, 홍반 등 피부에 있는 모든 잡티를 촬영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기기 작동법을 자세히 배운 후 촬영을 해보았는데 피부의 데이터가 눈으로 보기 쉽게 나오고, 결과값이 바로 정리되어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명대학교 임상지원센터(RIC)에서 좋은 선생님들께 기기 작동법, 피험자 시험 진행,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우며 여름방학을 누구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었고, 제 전공에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하면서 좀 더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주의 실습기간과 장마 기간이 겹쳐서 매일 비가 내리고 우중충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화창하고 밝게 보낸 4주간의 실습기간이었습니다.



〈ANTER3D기기로 측정하는 모습〉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연습
< 경험에서 얻는 정보!

전기공학과 노 주 명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연습 < 경험에서 얻는 정보!

전기공학과 노 주 명

LINC+사업단에 참여하고 나서 회사와 협약 관계에 있는 회사에 실습을 나가게 됐습니다. 자발적인 선택과 직접 기업을 선택해서 가기 위해서 협약 관계에 있는 회사를 검색해보며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란 생각을 하다가 철도분야의 (주)우진산전 증평공장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받아 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운 좋게 받아줘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든 기분은 회사란 곳은 이렇게 숨 막히는 곳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두 똑같은 책상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어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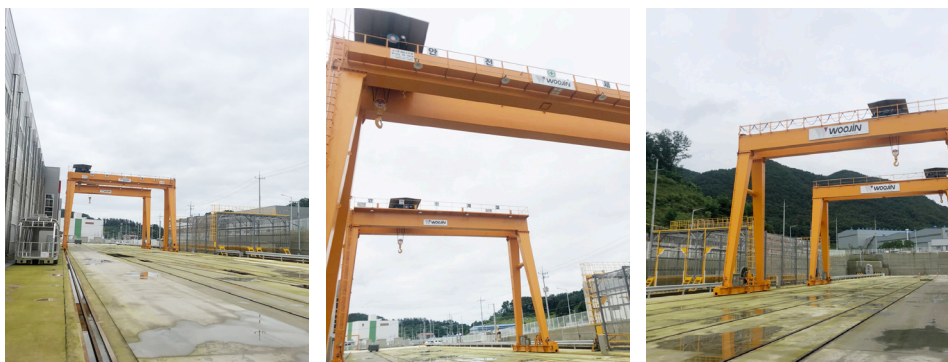
〈사진1, 2 – 서울5, 6호선에 들어가는 차량 측면 및 정면 사진〉

그다음은 저의 부서를 정해주셨는데 그 곳이 차량 설계 4팀이었습니다. 차량 설계라고 해서 처음에는 차량의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를 하는 곳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팀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각자 맡는 분야가 있었고 저는 그중 전기배선 파트에 일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19년도 10월경부터 많은 차량을 입찰 받게 되었고 그 기간에 제가 회사에 들어와 있어서 다양한 차량과 설명 그리고 차량의 설계도면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신림선, 인천 2호선(신림선과 인천 2호선은 생산 중이며 공장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 5,6호선[사진 1,2 하단에 첨부]을 직접 보고 평소에 지하철에서 보지 못하던 차량의 조종실, 차량 하단부 등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전기 관련 업무이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가끔 현장에서 나오는 용어나 기능이 나왔을 때 그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증평공장에 있는 사무실 이었지만 바로 1층 옆 건물에 A~H[사진3 하단 첨부]동이 있는 현장이 있어서 궁금하거나 구경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서 좋았고 뒤쪽으로는 도색하는 곳[사진4 하단 첨부]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3 – 공장 A~H라인〉



〈사진4 - 도색공장〉

그 옆으로 차량이 완성된 후 납품하기 전에 방수 등 시험 운전하는 곳[사진5 하단 첨부]도 구비돼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증평 말고도 오창, 기전, 본사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의 역할을 부품의 크기에 비례해서 본다면[증평 > 기전 > 본사]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크기가 나타납니다. 본사에서 IGBT, 하베스 등 기타 제어장치를 작은 물건을 만든다면 기전 공장에서는 그것들을 연결하고 기본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 후에 증평공장에 와서 차량과 직접 조립되며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납품한다고 보면 되고 오창에서는 전기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버스는 청주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이라고 하고 평소에 자주 보던 것이라 더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첫 주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과장님 대리님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 알던 차가운 회사의 이미지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에 같이 족구도 하고 가끔 밖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회사 상사라는 이미지보다는 좋은 선생님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진5 - 시험운행 차량 및 방수 검사 등〉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건물 사진〉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기숙사, 사택이 외진 곳에 있어서 차가 없으면 도저히 시내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입사원들은 3~4달 정도 일을 하고 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차량 설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1달 정도의 실습이면 차량의 설계를 직접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차량 설계도면과 AUTO_CAD 등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왜 그렇게 설계를 하는지를 듣고 보고 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는 예전에 남이섬을 들어가는 모노레일을 만들려고 차량 설계를 했는데 꺾 라인 줄이 하나 연결되고 나서 모두 무산돼서 아직 그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 설계를 하고도 납품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납품을 맡은 차량 중에 인천 2호선은 2칸이 모여 하나의 지하철이 된다고 합니다. 경전철이라고도 하는데 그 1칸의 전철에 약 6000개의 전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6000개의 전선의 길이, 굵기, 종류, 용도에 알맞게 선정해서 설계도면을 만들고 이상이 있을 때 현장과 직접 피드백하면서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차량에 중전철과 경전철에 대해 설명하자면 차량은 중전철과 경전철이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경전철은 더 작은 지하철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제 자리에서 찍은 사진〉

예를 들어 에버랜드에 다니는 에어라인이나 인천공항의 1,2공항 사이에 다니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중전철과 다른 점은 고무바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철 운행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 전선을 깔지 않고 옆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위에 전선을 설치해 운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에 비해 좀 더 깔끔하며 두 번째는 중전철 이상의 큰 차량 운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설계를 맡다 보니까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역할이겠지만 그만큼 납품될 때 뿌듯함이 크다고 합니다. 한 달이란 적은 기간 동안만 있어서 직접 납품되는 모습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및 자신의 스펙을 올리는 것이 회사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더 잘 해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LINC+를 하고 있는 전기과 후배 또는 현장실습에 생각이 있는 학우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학교보다 더 현실적인 전공분야 현장업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밖에서 직접 경험하며 세부적인 업무하다 보면 알 수 없던 관심분야 있어서 고민해 보던 '나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는 무엇일까?'를 해결하기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 현장실습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보단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인턴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실습 느낌으로 먼저 경험한다면 취업 후에 겪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도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와 LINC+교수님, 우진산전에 감사의 말씀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가코스와 J&J, 중소기업과 소기업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이 예 지



메가코스와 J&J, 중소기업과 소기업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 이예지

안녕하세요! 현재 세명대학교 화장품뷰티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이에 지라고 합니다. 저는 3학년 여름방학에 메가코스라는 기업에 다녀왔고, 4학년 1 학기와 겨울방학에 J&J 인터네셔널이라는 기업에 실습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메가코스를 다녀온 후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진로설계 담당 교수님께서 실습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추천해 주신 기업이 바로 J&J 인터네셔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회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첫 실습기업을 갔을 때만 해도 사소한 일 하나라도 잘못하면 크게 혼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극심한 긴장을 안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과 처음 배우는 일을 마주한다면 누구든지 업무에 서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첫 출근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첫 출근부터 회사 연구원분들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녀온 J&J에서는 더욱 저를 평소의 직원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웃은 불편할 수 있으니 최대한 편하게 입고와라”, “신발은 연구할 때 불편하니 슬리퍼를 신어도 괜찮다”, “모르는 게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볼 수 있도록 해라.”, “회식을 이날 할 예정인데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니?” 등등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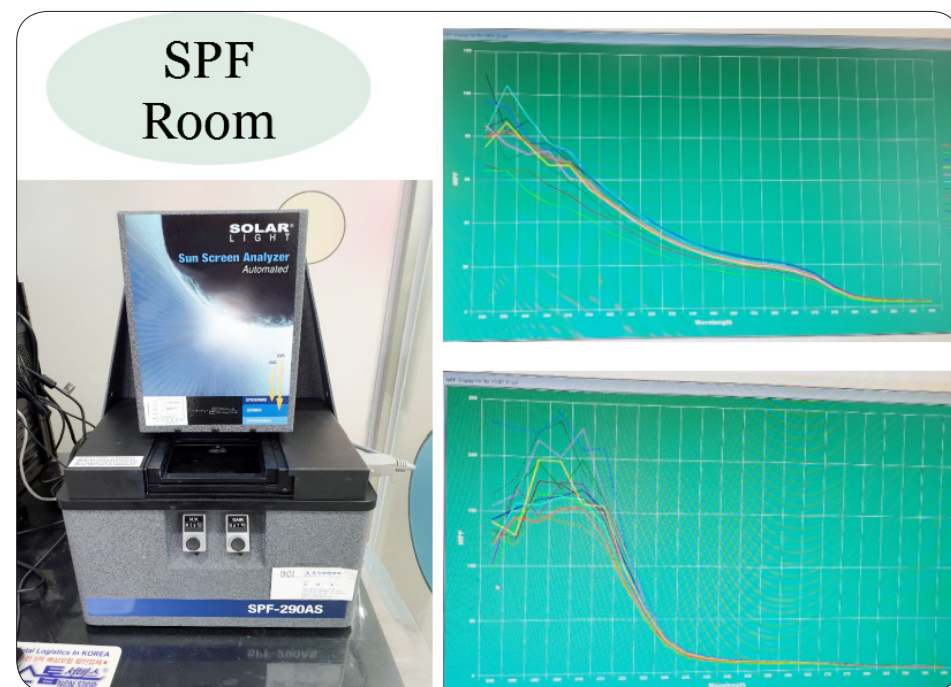
저는 연구원분 옆에서 화장품 연구를 보조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분야는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을 연구하는 부서와, 파우더를 이용해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분야에서 제품을 연구하는 부서였습니다. 메가코스는 큰 기업이며, 중간 공정의 회사라고 생각하신다면 J&J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작은 기업이며, 원료를 취급하는 처음 공정의 회사입니다. 메가코스에서는 바로 판매될 제품을 만들며 타 회사에서 원하는 화장품의 색깔, 발림성 등을 완벽하게 맞춰내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반면, J&J에서는 원료의 안정성과 원료의 취급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시간에도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옆에서 원료와, 기능, 효능 등에 대해 심 없이 물어보고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는 시판에서 구하기 힘든 화장품의 정보에 대해 적혀 있는 책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J&J의 경우 사장님께서선 선물 받은 화장품들을 직원에게, 그리고 저에게까지 똑같이 나누어 주신 후, 화장품은 여러 종류 계속 사용해 보고 관찰해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메가코스에서는 사장님을 잘 볼 수 없었지만 J&J에서는 늘 사장님과 함께 회사를 출근하였는데, 그래서 더욱 저에게 신경 써주셨고, 새로운 화장품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항상 저와, 세명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 연구원분께 알려주셨습니다. 세명대를 졸업하신 선배 연구원분도 저에게 원래 알고 있던 후배처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사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원료들의 정보를 정리해둔 파일도 보내주시는 등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이런 값진 경험과 정보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습에 대한 정보가 없고 두려움이 앞서 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했던 실습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실수를 한다고 실습생에게 화를 내시거나 그런 일은 절 때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한 실습생 중 한 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배 연구원분께서도, 사장님께서도 혼은 내셨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며 다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연구원분들은 실습생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회사 생활이 처음이고 학교에서 지식으로만 배웠던 저희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배우고 터득해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현장실습에서 배워온 것이 매우 많습니다. 메가코스 기업의 실습이 끝난 후 담당 교수님께 실습 추천이 들어왔을 때 저는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바로 갈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며 친구들과 연락할 땐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오늘은 이 화장품을 받아서 사용해 봤는데 좋더라! 하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글로 배울 수도, 누가 대신 경험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여태껏 방학 동안 놀러 다니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어떻게 써야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까 생각하시는 세명대 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다음 학기 방학 때는 꼭 현장실습을 신청하여 한 달, 한 학기 동안 의미 있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고 특히 제형에 관심이 많으신 화장품과 여러분이 꼭 이 회사에서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한 학기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1달~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신입사원은 출근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다! 저는 항상 9시 출근이었지만 8시 20분 정도에 도착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시 출근이란 즉, 일 할 준비를 9시 전까지 마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분들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잘한다! 저는 출근하는 즉시 회사에 들어가며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연구원 선배들께 한 번씩 무조건 인사를 하며 인사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에게 항상 인사를 잘한다며 좋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 주신다면 어렵지 않은 실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세명대학교 현장실습 수기집

발 행 일 | 2020. 12

발 행 인 | 이완건, 김학범

편집 · 발행 | 세명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전 화 | 043)649-1675

홈 페이지 | www.semyung.ac.kr
